현대패션에 표현된 넥타이의 미적특성

The Aesthetic Characteristics of the Necktie in the Modern Fashion

순천대학교 패션디자인전공
조교수 김 선 영

Department of Fashion Design, Sunchon National University
Assistant Professor : Sun Young Kim

◀ 목 차 ▶

Ⅰ. 서 론
Ⅱ. 이론적 배경
Ⅲ. 현대패션에 표현된
넥타이 연출의 미적특성
Ⅳ. 결 론
참고문헌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understanding the intrinsic meanings and aesthetic characteristics expressed by current fashion trends in neckties and to develop a new and unique fashion design for neckties. This study used precedent studies and related literatures to review the changes in neckties and the types of knots used over time. The findings were then verified by photographs from fashion magazines and collections from the 1990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neckties, generally regarded as a symbol of masculinity, are often mixed with other men's or women's clothing items rather than being worn by themselves, and they provide an androgynous characteristic in women's fashion. This transcendence of femininity or masculinity reflects the human desire to be a more perfect being by sharing each others characteristics, and it can be seen in contemporary beauty trends. Second, neckties have been transformed into scarves, waist belts, front-fly ornaments, and so forth. They are used to express a new and sensational sense, the sense of deconstructionism, by breaking away from stereotypes and changing the shape of neckties atypically.

주제어(Key Words): 넥타이(NeckTie), 양성성(Androgyny), 해체성(Deconstruction)

Ⅰ. 서 론

인체를 감싸는 의복 뿐만 아니라 여러 장신구를 포함하는 복식은 인간 내면의 욕구나 미의식을 표현하는 예술분야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넥타이 자체로는 의복의 기능을 못하지만 20세기 초 까지는 다양한 매듭장식으로 또 그 뒤로는 색상이나 소재의 다채로움을 통해 넥타이는 모든 남성들에게 나이나 여건을 초월해서 나름대로 독특한 개성을 실현시

Corresponding Author : Sun-Young Kim, Department of Fashion Design, Sunchon National University, 315 Maegok-dong, Sunchon, Chonnam, 540-742, Korea Tel: +82-61-750-3685 Fax: +82-61-750-3680 E-mail: ksy6341@sunchon.ac.kr

킬 수 있는 유일한 도구가 되어왔다.

이탈리아 작가 알베르토 모라비아(Alberto Moravia)가 "현대적 인간은 세계에 대한 자신의 이상을 개성으로 표현하고 고유한 자기 존재를 증명하는 단 하나의 장식품만 소유한다. 이것이 바로 넥타이다." 라고(Francois Chaille,1999 : 7) 한 것처럼 넥타이는 개성에 따른 선택적 소지품이기 때문에 착용하는 사람의 성격을 그대로 드러내게 되는 것이다.

넥타이가 실용적인 면에서 뚜렷한 기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랜 세월 동안 이어져 온 것은 남자들의 세계에서 구분의 수단일 뿐 아니라 복잡 미묘한 의사소통수단으로서 어떤 심미적인 가치를 내재하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특히 현대패션에 있어 넥타이는 남성의 전유물이 아니라 여성복에 있어서도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문화 전반에 걸친 포스트모더니즘의 영향 아래 성적 고정관념과 성역할, 미의식의 변화에 따라 남성과 여성이라는 이분법적 성의 탈피에서 벗어나 감각적이고 다양한 변화를 모색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넥타이에 관한 선행연구로는(박민여, 1986; 정은선, 1994; 신연수, 1996; 정흥숙, 정미진, 2000; 정미진, 2000)주로 넥타이의 변천과정, 문양과 디자인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져 여성패션과 관련된 넥타이에 관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현대패션에서 다양한 연출 방법으로 표현되고 있는 넥타이의 미적 특성에 관한 연구로 이를 통해 보다 독창적이고 새로운 패션디자인의 전개와 연출을 이해하고 활용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연구방법은 넥타이와 관련한 선행연구 및 문헌고찰을 통해 넥타이의 변천과정과 매듭의 종류를 알아보았고, 실증적 연구를 위해 Vogue, Harper's Bazaar, L'Officiel, Collections, Gap press, Fashion news 등 국내외 패션잡지와 컬렉션지의 작품을 분석하였다. 실증적 분석을 위한 연구범위는 1990년대 이후부터 현재까지로 한정하였으며, 그 이유는 다양한 문화와 첨단기술의 발전, 물질적 풍요에 따른 가치관과 윤리관의 변화 및 세기의 변화 등 미의식의 변화가 예상되는 새로운 전환적 시기로 사료되기 때문이다.

Ⅱ. 이론적 배경

1. 넥타이의 변천과정

넥타이(Neck Tie)란 목에 두르는 길고 좁은 밴드로 주로 칼라 밑에 보 (Bow)와 매듭으로 매며 끝은 길게 늘어뜨린 형태로 크라바트 대용으로 쓰인다(패션큰사전편찬위원회, 1999: 60). 현대남성 넥타이의 기원인 크라바트는 장식적 의미로 시작된 목장식(Neck Wear) 또는 목도리(Neck Cloth)의 일종이라 할 수 있다. 시대에 따라 다양한 변화를 거쳐 오늘날까지 사용되는 넥타이는 가장 일반적인 형태인 포인 핸드(Four in hand Tie)와 보우 타이(Bow Tie), 애스컷 타이(Ascot Tie)라 할 수 있다. 장식적 의미로 시작된 넥타이의 변천과정을 시대적으로 고찰하면 다음과 같다.

1) 17 세기

넥타이의 역사는 30년 전쟁(1618~1648)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루이 14세 때 원병으로 파리에 온 크로아티아의 크로아트(Croate)연대의 병사가 목에 두르고 온 천을 본뜬 것으로, 프랑스에서는 흰 삼베나 모슬린으로 넓은 매듭을 만들고 레이스로 다시 자락을 만들어 붙이는 등 한층 세련된 형태로 변형시킨 크라바트(Cravate)가 유행하기 시작했고 또 영국으로 건너가 널리 퍼지게 되었다. 루이 14세는 가장자리를 가슴까지 늘어뜨리고 거기에 레이스나 자수로 장식하였으며, 통치 초기에 '왕궁전속 넥타이 제조업자' 를 처음으로 임명하여 아침마다 루이 14세가 넥타이 매는 것을 도와주고 장식을 담당하도록 하였다. 또 루이 14세의 애첩이었던 라 발리에르(La Valliere)공작부인은 넥타이를 맨 최초의 여성들 가운데 한사람으로 19세기에 사람들은 남성넥타이 가운데 가장 우아한 것에 그녀의 이름을 붙이기도 하였다(Francois Chaille, 1999 : 120).

당시 남자들은 손질하는데 시간과 수고가 많이 드는 레이스 넥타이를 맸으나 전투에 나가기 위해 재빨리 옷을 갈아입어야 했던 군주나 제후들은 이것을 목주위에 아무렇게나 두를 수 밖에 없었다. 그 뒤에 여성들이 그 형태를 그대로 본뜬 장식품을 착용하게 되었는데 사람들은 이를 슈타인케르크(Steinkerque)라 불렀다〈그림 1〉. 프랑스에서는 약 20여년간 유행되었고 이후 약 1세기 동안 지속되었다. 슈타인케르크의 끝자락은 가장자리를 감아 양복저고리의 한 단춧구멍에 집어넣게 되어 있었다. 관습적으로는 주로 여섯 번째 구멍에 집어넣게 되어 있었는데 그것은 이 구멍이 매듭짓기에 쉬운 위치에 있고 살짝 막혀 있어서 바람이 불어도 안전했기 때문이다(Francois Chaille, 1999 : 71).

2) 18 세기

1715년 루이 14세가 서거하자 프랑스에서는 슈타인케르크도 자연히 퇴조하고 영국에서는 스토크(Stock)라 불리는 새로운 양식이 출현하였고 (Doreen Yarwood, 1992 ; 61), 이후로 여러 가지 스타일로 수없이 변형되는 가운데 1850년대까지 최고의 인기를 누리며 지속되었다〈그림 2〉.

초기에는 단순히 흰 직사각형 모슬린이나 흰 삼베를 좁은 밴드모양으로 접어서 목에 두세 번 두른 다음 뒤쪽에서 핀으로 고정시키는 밋밋한 형태였다. 이 과정이 다소 복잡했기

때문에 가장자리가 바느질된 모슬린 밴드를 사서 고리만 채우는 되는 것이라든가 품질이 좋은 흰 삼베에 빳빳하고 두꺼운 종이를 넣어 채움 고리를 단 것 등 형태가 미리 만들어져 팔리는 것이 나왔다. 흰색으로만 만들어지는 이 스토크의 가장 큰 특색은 셔츠 앞섶을 가려주면서 가슴 위로 떨어지는 자락이 없다는 것으로 과거 크라바트의 풍성한 볼륨감을 대신하기 위해 셔츠에 붙이는 레이스 가슴장식과 함께 사용되었다. 두번째 특징은 빳빳한 표면으로 목을 둘러싸기 때문에 불편했지만 머리를 꼿꼿이 세우고 턱을 앞으로 약간 내민 상태에서 똑바로 걸어야 했기 때문에 남자다운 당당한 위풍을 나타낼 수 있는 장점도 있었다. 그러나 정신적 자유를 부르짖는 젊은 층에서는 이 넥타이에 대해 격렬한 비난과 함께 거부반응을 보이기도 했다(Francois Chaille, 1999 : 72).

이후 1740년경 사람들이 기다란 가발 대신 머리를 틀어올리거나 뒤에서 하나로 묶고 다니자 머리를 묶는 작은 그물무늬의 검은 실크리본을 앞으로 가져와서 턱 바로 밑 흰 넥타이 위에 매듭지어 장식한 솔리테르(Solitaire)가 나타났다(Doreen Yarwood, 1992: 62)〈그림 3〉. 이 넥타이는 유럽 전역에 걸쳐 유행되었지만 특히 영국에서 열광적인 인기를 누렸으며 프랑스에서는 멋쟁이 후작들의 기본요소로서 루이 15세 섭정기 내내 유행했다.

그러나 1770년을 시발점으로 스토크를 가장 먼저 벗어던진 사람들은 마카로니(Macaroni)라 자처하던 영국의 젊은 귀족층으로 볼륨감이 많은 넥타이를 매고 다녔고, 1790년대 말 프랑스에서는 혁명정부의 집정내각시대에 영국의 마카로니를 흉내 낸 젊은이 무리인 엥콰야블(Incroyables)이 등장했다. 엥콰야블은 비정상적이고 기형적인 모습으로 자신을 가꾸는 일에 온갖 정열을 바친 젊은이들을 지칭하는 것으로 이들은 전체적으로 꽉끼는 스타일에 한없이 넓은 칼라, 과장되게 부풀린 어깨, 특히 요란스런 색상에 스카프로 목과 턱 전체를 둘러맸고(Francois Chaille, 1999: 82) 과장되게 큰 크라바트 등으로 치장했다〈그림 4〉.

또 1771년 영국에 애스컷 경마장이 설립되면서 애스컷 타이가 탄생하는데(이현숙, 이정숙, 2002: 67) 이는 전형적인 일반 넥타이, 나비 넥타이와 함께 오늘날까지 사용되는 3종류의 넥타이 중 하나로 넓은 두 자락이 가슴 위에서 교차되는 양식이다〈그림 5〉.

3) 19 세기

다양한 형태들이 수없이 쏟아져 나온 19세기 전반기는 넥타이의 황금기라 할 수 있다. 1815년부터 30년까지 유럽의 패션은 조지 브라이언 브루멜(George Bryan Brummell)이 상류사회 패션에 큰 영향을 끼친 시기로(정미진, 2000) 그의 크라바트를 매는 방식은 하나의 독창적인 예술로까지 인정을 받았다. 그의 추종자였던 프랑스의 소설가 발자크(Balzac)는"넥타이는 바로 그 사람이다."(Binder, 1953: 186)라고 정의하기도 하였다.

또 1828년 에밀 드 랑프제(Emile de L' Empese)남작의 서명이 된<널리 알려져 있고 또 통용되고 있는 모든 방식으로 넥타이를 매는 기법, 16항목의 지침과 보기>라는 책자가 파리에서 출간되어 크라바트를 매는법이 중요하게 부각되기 시작한 것을 알 수 있다. 14개의 넥타이로 맬 수 있는 18가지 이상의 매듭양식을 소개한 이 책자에는 정신적, 심리적 측면까지 설명되어 있다.(Francois Chaille, 1999: 120).

〈그림 1〉 Steinkerque, 1694 (Cravates, p. 14)

〈그림 2〉 Stock, 1783 (Cravates, p. 15)

〈그림 3〉 Solitaire, 18C (넥타이, p. 91)

〈그림 4〉 Incroyables, 1796 (넥타이, p. 82)

1830년경부터 크라바트는 넥타이로 부를 수 있을 만큼 남성 복장의 액세서리로서 변화를 하였고, 이때부터 넥타이는 흰색, 검은색 이외에도 다양한 색상과 재료의 기성품 넥타이가 등장하여 널리 사용되었다(정은선, 1994). 또 1850년대에는 크라바트의 앞 매듭을 독립시킨 나비 넥타이가 출현하여 흰색과 검은색은 저녁에만, 색상이 있는 것은 데이웨어로 착용되었다(정미진, 2000).

1860년 영국에서는 포인 핸드가 등장하였는데 폭이 좁고 매듭이 작으면서 긴 자락이 가슴아래까지 내려오는 형태로 오늘날 넥타이의 직계조상이라 할 수 있다〈그림 6〉. 또한 페미니즘사상이 처음으로 등장한 19세기에 이르러 넥타이는 여성들에게 자아해방을 선언하는 수단으로 사용되기도하여, 프랑스의 여류작가 조르주 상드(George Sand)와 플로라 트리스탕(Flora Tristan)은 사회인습에 대한 의식적 거부의 표현으로 남성복장을하고 넥타이를 매고 다녔다(Francois Chaille, 1999: 84).

4) 20세기

19세기 중엽까지 목을 장식하는 수 많은 형태가 존재했으나 오늘날까지 널리 사용되는 넥타이의 기반이 된 것은 19세기 포인 핸드에서 왔다고 할 수 있다(Beate Schrrid, 2001: 22). 이 넥타이는 1920년대 미국의 넥타이 제조업자 제시 랭스도프(Jesse Langsdorf)가 좀더 오래가고 잘 풀리지 않은 제작방법으로 특허를 얻어 중요한 발전을 이루어 오늘날의 넥타이를 만들었다. 이는 실크를 세부분으로 나누어 도안하고 각각 비스듬히 바이어스로 재단한 다음 다시 이어 꿰매는 방식으로(Francois Chaille, 1999: 120)넥타이가 꼬이고 주름지는 것을 방지하였으며 매듭을 보기 좋게 만들었다.

제시 랭스도프가 선보인 현대적 넥타이는 가장 폭이 넓은 부분이 7~8cm 였고, 길이가 140cm 정도로 오늘날의 것과 거의 비슷한 사이즈이다(Francois Chaille, 1999: 59). 이 사이즈는 일시적인 유행에 따라 조금씩 변경되기도 하여 1950년대에는 얇고 긴 타이가, 1960년대에는 폭이 넓은 타이가 유행하였다. 또 1960년대와 1970년대 동안 넥타이는 무늬나 소재 면에 있어서 환상적인 해석을 통하여 수 많은 예술사조로 통하는 출구를 개척하기도하여 젊은 계층의 사람들은 추상미술이나 기하학적인 무늬가 있는 15cm나 되는 넓이의 디자인을 선택했고, 폭이 좁은 가죽 넥타이는 예술가 또는 지성인의 표시로 여겨지기도 하였다. 1980년대에 이러한 경향은 점차 약해져서 넥타이는 다시 비즈니스를 위한 의상의 구성요소로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으며(Beate Schrrid, 2001: 22), 1990년대 이후 넥타이는 패션이 다양화되고 개성화됨에 따라 자유롭고, 화려한 색상과 패턴, 표현의 제한이 없는 다양한 디자인이 선보여졌다.

2. 넥타이 매듭의 종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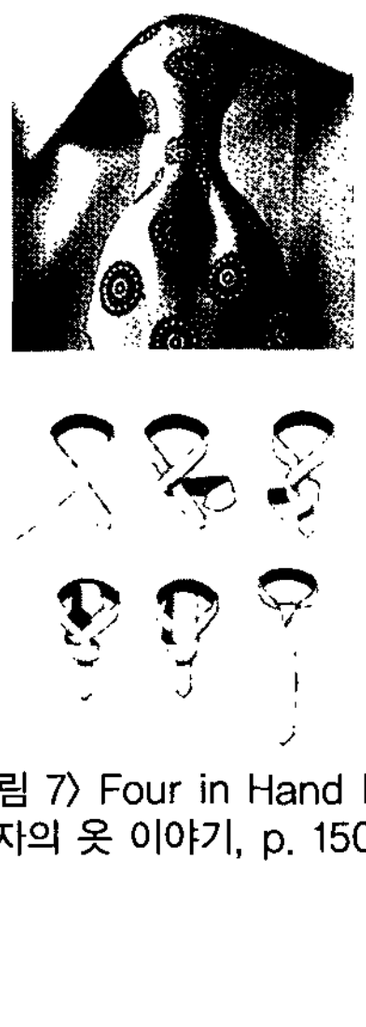
넥타이의 종류에 있어 오늘날까지 사용되어지는 것으로는 일반적인 넥타이를 지칭하는 것으로 더비타이(Dobby Tie)라고도 불리는 포인 핸드 타이와 끝이 사각으로 커트되어 니트소재를 사용한 스퀘어 타이(Square Tie), 나비모양 매듭으로 묶는 넥타이를 총칭한 보우 타이 그리고 변형타이인 애스컷타이가 있다. 남성복의 연출에 있어 색상과 패턴에 따른 넥타이의 다양한 변화는 새로운 인상을 연출해내는 중요한 요소이며 또한 넥타이를 매는 방식에 따라 색다른 분위기를 표현하기도 한다. 넥타이 매듭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포인 핸드 노트(Four in hand Kno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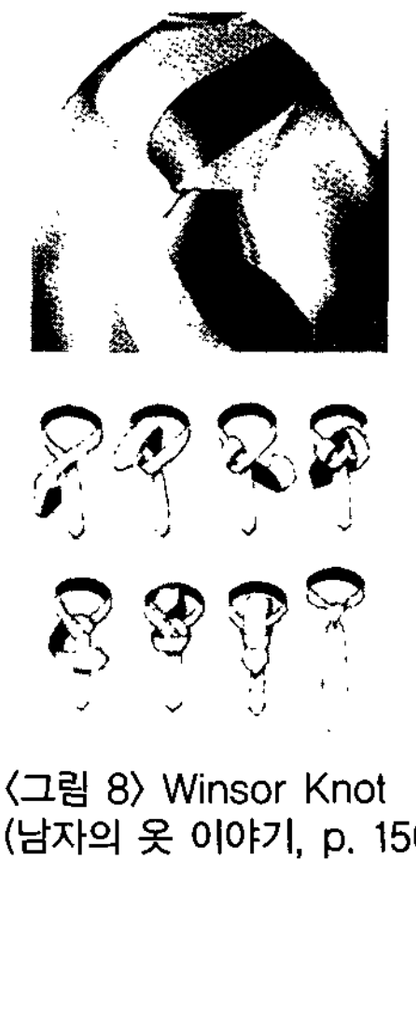
플레인 노트(Plain Knot)라고도 불리며 가장 기본적인 넥

〈그림 5〉 Ascot Tie, 1895
(넥타이, p. 79)

〈그림 6〉 Four in Hand, 19C
(넥타이, p. 39)



〈그림 7〉 Four in Hand Knot
(남자의 옷 이야기, p. 150)



〈그림 8〉 Winsor Knot
(남자의 옷 이야기, p. 150)

타이 매듭법으로 윈저 노트 및 세미 윈저 노트와 함께 가장 선호되는 매듭법이다. 이 매듭법은 큰 날을 좌우 어느 쪽에도 걸지 않고 한바퀴 반 감아 내려 매는 것으로, 포인트는 역삼각형 매듭 아래로 내려오는 큰 날의 시작부분을 자연스럽게 처리하는 것이다〈그림 7〉. 또 플레인 노트보다 볼륨감을 더 주고 싶을 때 큰 날을 한번 더 감아 내려 이중 매듭을 형성하는 더블 노트(Double Knot)방법을 사용하기도 한다(타이콘 패션연구소, 1997: 150).

2)윈저노트(Winsor Knot)

세계적인 베스트 드레서였던 윈저공(Duke Winsor)이 창안하여 자신의 이름을 딴 것으로 타이의 매듭을 조금 더 크게 만드는 것으로 큰 날을 좌우에 한번씩 걸어 한 바퀴 감아 내린 후 양쪽의 조임 상태를 균등하게 유지하는 것이다(타이콘 패션연구소, 1997: 150)〈그림 8〉.

3)세미윈저노트(Semi Winsor Knot)

윈저 노트 매듭의 약 3/4 정도 되는 것으로 큰 날을 좌우 어느 한편만 걸어서 매듭을 짓는 것이다. 한 편만 걸기 때문에 좌우를 균등하게 만들기 위해서 꼭 조여야 할 필요가 있으며 심이 얇은 넥타이로 연출할 경우 플레인 노트의 심플함을 연상시키게 된다(타이콘 패션연구소, 1997: 150) 〈그림 9〉.

4)블라인드 폴드 노트(Blind Fold Kno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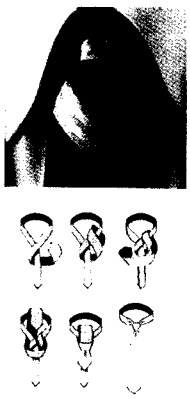
넥타이 자체의 존재감이 강하게 표현되는 방법으로 플레인 노트 상태에서 큰 날을 매듭 뒤쪽으로 돌려 앞으로 빼내면 되는 것으로 다른 매듭법에 비해 전혀 다른 브이 존을 형성하여 강렬한 이미지를 표현하게 된다(타이콘 패션연구소, 1997: 150)〈그림 10〉.

5)보우 타이 베이직 노트(Bow Tie Basic Kno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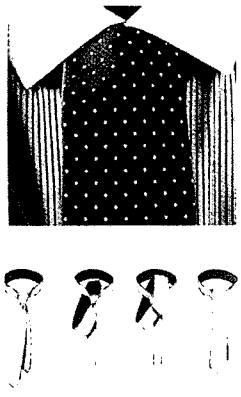
1904년 오페라 나비부인의 성공에 의해 이름 붙여진 보우타이는 착용 시 목의 넓이보다도 커서도 또 셔츠의 칼라 중심점의 바깥부분 뒤쪽으로 나가서도 안되며 매듭을 중심으로 하여 좌우 균형을 이루도록 해야 한다(정미진, 2000)<그림 11>. 또 베이직 노트보다 고름을 한 개 더 잡아매는 더블 베이직 노트(Double Basic Knot)역시 세련된 브이 존을 형성한다.

Ⅲ. 현대패션에 표현된 넥타이 연출의 미적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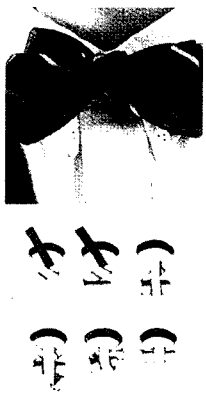
넥타이는 현대사회에서 단지 남성정장에 의례적으로 매는 장신구의 차원을 넘어서 여성복에 있어서도 다양한 연출방법으로 착용되어 착용자의 미적 감각, 개성, 자기표현을 나타내는 중요한 요소로 나타나고 있다. 넥타이는 형태에 따라 일반적으로 매는 방법이 약간씩 차이가 있으며 이에 따라 다양한 분위기를 연출하게 되나, 고찰결과 여성복에 넥타이를 연출시키는 경우 포인 핸드 타이를 주로 사용하였으며, 넥타이 문양의 다양화보다는 넥타이 자체의 형태를 변화시키거나 목둘레 장식이 아닌 다른 신체부위로 전환시켜 새로운 분위기를 표현하였다. 특히 넥타이의 형태변화 및 기타 액세서리와의 조화에 의한 장식성과 의상과의 코디네이션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실용성을 겸비하고 있으며, 착용자의 개성에 따라 목에 감거나 두르기, 허리에 두르기, 다른 용도로의 전환 등 다양하게 연출할 수 있는 가변적인 새로운 조형미를 표현하였으며, 이러한 넥타이의 다양한 연출을 통해 양성성의 표출과 해체성의 특성을 나타내었다.



〈그림 9〉 Semi Winsor Knot (남자의 옷 이야기, p. 151)



〈그림 10〉 Blind Fold Knot (남자의 옷 이야기, p. 152)



〈그림 11〉 Bow Tie Basic Knot (남자의 옷 이야기, p. 153)

〈그림 12〉 Eymeric Francois, 2005 F/W (Gap press, Vol. 14)

1. 양성성

남성과 여성은 태어나면서부터 1차적으로 생리적인 성을 갖게 되며 2차적으로 사회적인 성을 갖게 된다. 이러한 생물학적 성과 사회적 성은 남성성과 여성성에 대한 관념들을 이루고 이 관념들은 복식에서 성적이미지들을 창조하고 보여주는데 있어 어떤 절대적인 역할을 형성하였다. 그러나 현대에 들어서 성역할의 변화, 자유로운 감성과 개성의 추구, 세계화와 다원주의 시대에 몰입 등 사회, 문화적 환경은 개인에게 자유를 추구하고 한 개인에게서 남성과 여성의 특징을 동시에 표출하게 하는 양성성의 표현을 자유롭게 하도록 하였다. 즉 인간의 내면에 숨겨져 있는 상반된 양면성을 어느 한 부분도 부정될 수 없는 동등한 하나의 본질로 인정하게 된 것이다 (함연자, 2003).

제인 그로브(Jane Grove) 역시 20세기 복식의 혁명 중 하나는 성의 혁명으로 여성이 남성스타일을 수용함으로써 전통적인 여성의 가시적 이미지에 대해 도전한다고(김민자, 2004: 100) 한바와 같이 현대에 와서 은폐와 위장 등을 통해 패션이 창출하는 성적 이미지는 그 구분을 모호하게 하거나 반전시켜 다양한 변화를 실현하였다.

패션에 있어 성적고정관념의 변화는 1900년을 전후하여 여성패션에 남성복의 요소가 도입된 것을 시작으로 양성성의 성향이 표출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후 이러한 양면가치의 대두는 여성복에 남성적인 요소가, 남성복에 여성복의 요소가 도입되어 앤드로지너스, 듀얼리즘 등 현대패션 트랜드의 한 요소로 반영되어 성의 초월을 출현시켰고 남성복이 여성화 되는 것에 가속을 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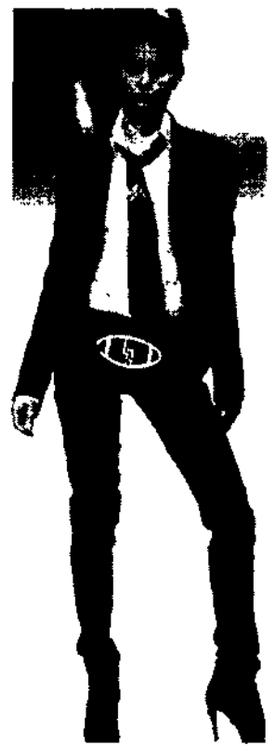
양성성 즉 앤드로지너스(Androgynous)는 고대 그리스어인 앤드로(Andro)와 여자를 뜻하는 진(Gyn)의 합성어로 남성성과 여성성의 복잡한 결합이며, 전체성, 결합, 통합의 추상적인 개념을 나타낸다. 이러한 결합, 통합의 의미는 남성성과 여성성의 공존이라는 상황 하에서 성립되는 것으로 두 특징이 결합되어 하나의 다른 성질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제 3의 성으로 존재한다(김경옥, 금기숙, 1998). 따라서 남성과 여성이라는 양분화 현상보다는 각각의 요소들을 반대성에 차용하거나 남성과 여성적인 특징을 혼합함으로써 각각의 성이 갖는 고정관념을 뛰어 넘어 성적인 차별을 중시했던 기존의 패션관으로 부터 벗어난 자유로운 감성의 표현방식을 나타낸다. 〈그림 12〉는 여성의 인체 위에 여성성을 강조하는 코르셋, 남성성을 표출하는 슈트와 넥타이, 중성적 이미지의 메이크업, 성의 모호성을 가중시키는 가면 등 성을 구분 짓는 요소들을 혼합하고 또 재구성하여 성의 공존을 통한 새로운 양성성의 표현을 보인다. 〈그림 13〉역시 턱시도 슈트, 볼륨감을 나타내는 튤 스커트와 연출된 광택소재의 넥타이는 서로 다른 소재의 블랙으로 구성되어 이질감 대신 통합의 개념으로 표현되어 성적구분의 무가치함을 나타내고 있으며, 〈그림 14〉 또한 웨딩드레스의 개념을 깨고 남성의 상징인 넥타이를 함께 연출시켜 양성성의 표현과 함께 발상의 전환을 자유롭게 표현하였다.

일반적으로 패션에서 양성성은 대체로 남성보다는 여성이 남성복식의 이미지를 수용함으로써 좀 더 남성적 특질을 강하게 보이고자하는 측면으로 인식되었으나 강한 남성성의 표현이라기보다는 남성다운 여성스러움으로 남성복에서 빌려온 턱시도 수트, 넥타이, 와이셔츠, 바지 등의 아이템으로 표현된다. 〈그림 15〉와 같은 이러한 표현은 남성복에서 표출되는 상징적인 힘을 나타내기 위한 수단으로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다는 평등의 이념을 가지고 남성성이 내포하는 자신감, 독립심과 같은 강한 이미지를 새로운 소비의 주체자인 여성의 패션에 표현한 것이다.

〈그림 13〉 Givenchy, 2003 S/S (Fashion news, Vol. 84)

〈그림 14〉 Chanel, 2001 S/S (L'Officiel, 2001. 3)

〈그림 15〉 Givenchy, 2001 F/W (Mode & Mode, Vol. 316)



〈그림 16〉 Lagerfeld Gallery, 2004 F/W (Harper's Bazaar, 2004. 5)

가버(Garber)는 앤드로지너스란 용어보다 트랜스베스티즘(Transvestism)을 주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이성의 옷을 입거나 태도를 취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의미는 변태성욕의 일종으로 간주하였으나 최근에는 흔히 볼 수 있는 유행의 현상으로 고정된 성역할에 대한 반항의 상징 또는 전통적 남성복식에 대한 싫증과 함께 여성복식의 이미지를 모방하는 일면이기도 하다. 그러나 스톨러(Stoller)는 여성 역시 성 도착적 충동을 가지나 남성의 의복은 에로틱한 가치를 갖지 않기 때문에 여성은 성도착자가 될 수 없다고 하였다(김민자, 2004: 105). 〈그림 16〉과 같이 남성의 테일러 수트, 넥타이, 와이셔츠 등을 도착한 것은 여성의 트랜스베스티즘의 한 일면이라 할 수 있으나, 이러한 표현은 여성성을 강조하는 몸에 달라붙는 스키니 팬츠와 스틸레토 힐, 화려한 핀 장식과 같은 아이템과 함께 조합되어 복식도착의 행위라기보다 에로틱한 가치를 내포하며 남성성과 여성성의 공존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남성 심벌의 상징이자 남성미학의 본질을 대표하는 넥타이는 넥타이 원형을 그대로 유지한 채 단독으로 사용되기 보다는 남성복이나 여성복의 다른 아이템들과 함께 넥타이 본연의 용도인 네크 웨어로 연출되어 여성 패션에 있어 양성성의 표현을 가중시킨다. 이러한 표현은 여성다움 혹은 남성다움을 뛰어 넘어 한 가지 성 위에 다른 성의 요소를 공유하게 하여 보다 완전한 존재가 되고자 하는 인간의 욕망을 반영한 것이며 이 시대가 추구하는 미의식의 반영이라고 할 수 있다.

2. 해체성

20세기 후반 접어들어 탈모더니즘 현상이 나타나면서 각 분야에서는 기성가치가 무너지고 가치관의 혼란을 겪게 되었고 이에 따라 기존의 개념들을 해체시켜야 한다는 인식과 사고로의 전환이 요구되어졌다. 1966년 자크 데리다(Jaques Derrida)는 '무엇이 해체주의다.' 라고 말하는 대신 '해체주의에 대해 정의를 내리는 것은 해체주의가 아니다.' (김주현, 권미정, 이순자, 1999)라고 하여 해체라는 단어조차 해체하는 모든 텍스트들에 대한 해체를 선언하였으며, 개체의 존엄성과 자유, 소외된 타자, 차이, 역사성을 인정하였고, 그 동안의 고정된 서구 이성중심주의에 종말을 고하고 새로운 인식의 장을 열게 하였다 (정용교, 1991).

해체주의는 단순히 무엇인가를 파괴한다는 것이 아니라 구조주의가 구축해 놓은 구조를 구조주의 내부에서 해체 혹은 탈구축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체주의를 설명하기 위한 개념적 특성으로는 인용, 텍스트와 글쓰기, 차연, 보충, 산종, 흔적, 현존과 부재, 상호텍스트성, 불확정성, Dis, De탈현상 등을 들 수 있다.

패션에 있어 해체주의는 1989년 '디테일즈(Details)' 잡지에서 빌 커닝햄(Bill Cunningham)에 의해 처음 사용되어졌으며, 디자인 원리를 기본으로 디자인하고 구성하던 기존의 경향을 해체시키고 의복의 형태를 신체의 움직임과 착용자의 개성에 따라 재구성한 양식으로 표현되는 특성을 나타내었다(김은실, 배수정, 2000).

이러한 현대패션의 경향 아래 넥타이 연출에 있어서도 다양한 형태변화와 실험적 시도로 기존의 규범에 대한 해체의 표현이 나타났으며 가장 대표적인 표현방식은 착장방식과 용도의 해체를 통한 것이다. 〈그림 17〉과 같이 넥타이 본래의 의미 대신 스카프로, 혹은 〈그림 18〉과 같이 형태만을 이용하여 의복의 트임으로 전환되어 복식의 디자인 요소로 활용하기도 하고, 〈그림 19〉와 같이 매듭 짓지 않고 그냥 두르는 형식 또는 장식적인 연출을 위해 허리 벨트로 전환되거나, 〈그

〈그림 17〉 Cividini, 2005 S/S (Vogue, 2002. 12)

〈그림 18〉 Feraud Paris, 2001 S/S (L'Officiel, 2001. 3)

〈그림 19〉 Paul Smith, 2000 S/S (Vogue, 2002. 12)

〈그림 20〉 Jean Paul Gaultier, 2002 S/S (L'Officiel, 2002. 4)

〈그림 21〉 Arkadius, 2001 F/W (Vogue, 2001. 5)

〈그림 22〉 Jean Paul Gaultier, 1997 S/S (Collections II)

〈그림 23〉 Torrente, 2004 S/S (Gap Press, Vol. 11)

림 20〉과 같이 몸에 꼭 맞는 캐미솔 톱으로 전개되는 등 용도의 해체를 표현하기도 하였다.

또 해체패션에서 의미의 불확정성은 착용자에 따라 착장 방법을 달리하는 불확정적 형태 혹은 열린 형태로 나타난다. 이러한 형태는 무형식의 표현기법으로 특별한 형태나 형식을 미리 규정하지 않고 착용자에 의해 우연히 완성되는 미완성의 형태로 나타나게 된다. 〈그림 21〉은 간접 노출된 여성의 상반신 아래에 남성성을 특징짓는 와이셔츠와 넥타이, 재킷을 마치 스커트 처럼 연출시켜 비정형적인 착장방식의 해체를 가시화하고 있으며, 〈그림 22〉 역시 여성 인체의 뒷면에 위치한 넥타이는 본래의 자리에서 벗어나 비상식적인 위치로 전환되어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면보다는 감각적인 자극과 다양한 즐거움을 추구한다. 이와 같이 미의 원리 파괴, 노출, 의복의 상하, 앞뒤를 혼동시키는 의도적인 표현, 부조화의 조화 등으로 나타나는 착장방식의 왜곡은 유희적인 측면을 나타내는 해체성의 한 표현 방법이기도 하다.

또 데리다가 의미란 주관에서 비롯된 허구적 구조물일 뿐이며 불확정성이란 모든 체계가 개방성을 띠어 무한히 확장되어 다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주장한바와(김주현 외 2인, 1999) 같이 넥타이 연출에 있어서도 일정한 척도와 기준이 존재하지 않으며, 착장방법에 대한 고정관념이 해체되고 인체 위에서 재창조되어 절대적인 개념 대신 상대적인 개념에서 착용자에 따라 착장 방법을 달리하는 불확정적 형태 혹은 열린 형태로 나타난 것이다. 이 열린 형태는 무엇보다도 자유로운 감성에 의해 완성되는 형태로서 새로운 스타일에 대한 욕구이며 기존의 고정관념과 기능적인 패션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개방적인 시도라 할 수 있다.

그리고 해체주의에서 추구하는 탈현상은 단순한 형이상학의 부정이 아니라 텍스트를 개념적으로 분해하고 재구성함으로써 통일된 전체성을 부정하는 것으로 부재, 허구, 현상, 추상 등을 구체화시키는 작업으로 (조말희, 1996), 복식에 있어서는 탈중심, 탈구성, 위치전환으로서의 전위, 일정기준이나 규칙의 지배를 받지 않는 무질서한 디자인, 또는 자유로운 사고에 의해 의복이 갖추어야 할 형태를 벗어난 새로운 구성, 비구조적 표현 등으로 나타나게 된다. 〈그림 23〉은 넥타이의 기본 형태에서 벗어나 과장되게 긴 길이로 셔츠드레스의 앞 중심선 끝까지 위치하며 인체를 속박하는 듯한 끈 장식으로 인해 긴 넥타이의 연속적인 흐름을 차단시켰다. 기존 구성방식의 파괴로 형태의 역설적 구성을 취해 넥타이 형태의 왜곡과 과장을 표현한 탈구성의 원리를 보여주는 이러한 연출은 정형적인 형태로부터 벗어나 수용자에게 호기심과 즐거움을 유발시켜 시선을 집중시키는 하나의 유인자극으로 작용하게 하며, 넥타이 자체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한다.

이와 같이 현대패션은 일시성과 부적합성, 의외성을 추구하며 실용적이기보다는 보여 지기 위한 것으로 넥타이 연출에 있어서도 발상의 전환을 통해 넥타이 본래의 용도가 아닌 객관적이기보다는 주관적이며 불확정한 형태로 추상화, 비정형화, 형태가변화 등의 다양한 외적 특성과 의미의 불확정성을 제시하는 등 해체성의 전개를 나타냈다.

Ⅳ. 결 론

근대 남성복에서 시작되어 현대에까지 남성정장에 빠질 수 없는 필수품인 넥타이는 남성의 멋을 외면으로 한껏 표출해 줄 수 있는 개성적인 장신구일 뿐만 아니라 현대여성패션에 있어서도 다양한 연출로 표현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론적 배경으로 넥타이의 변천과정과 종류, 매듭의 종류에 대해 고찰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현대패션의 다양한 경향 속에서 넥타이 연출을 통해 표현되는 미적특성을 이해하고 이를 통해 보다 독창적이고 새로운 패션디자인의 전개와 연출에 활용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넥타이는 형태에 따라 일반적으로 매는 방법이 약간씩 차이가 있으며 이에 따라 다양한 분위기를 연출하게 된다. 고찰 결과 여성복에 넥타이를 연출시키는 경우 포인 핸드 타이를 주로 사용하였으며, 넥타이 문양의 다양화보다는 넥타이 자체의 형태를 변화시키거나 목둘레 장식이 아닌 다른 신체부위로 전환시켜 새로운 분위기를 표현하였다.

현대패션에 나타난 넥타이 연출의 미적특성은 첫째, 성적

이미지들을 창조하고 보여주는데 있어 절대적인 역할을 하는 의복은 성적고정관념과 성역할, 사회적인 풍조, 미의식의 변화에 따라 남성과 여성이라는 이분법적 성의 탈피를 보이면서 패션에 있어 다양한 양상을 가지고 변화하게 되었다. 따라서 남성의 상징물 처럼 여겨지던 넥타이는 단독으로 사용되기 보다는 그 원형을 유지한 채 남성복이나 여성복의 다른 아이템들과 함께 연출되어 여성 패션에 있어 양성성을 나타내었다. 이러한 표현은 여성다움 혹은 남성다움을 뛰어 넘어 한 가지 성 위에 다른 성의 요소를 공유하게 하여 보다 완전한 존재가 되고자 하는 인간의 욕망을 반영한 것이며 이 시대가 추구하는 미의식의 반영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20세기 후반 현대패션의 탈모더니즘 현상에 따라 넥타이 연출에 있어서도 발상의 전환을 통해 객관적이기보다는 주관적이며 불확정한 형태로 추상화, 비정형화, 형태가 변화 등의 다양한 외적 특성과 의미의 불확정성을 제시하는 등 해체성의 전개를 나타냈다. 따라서 넥타이 본래의 용도를 벗어나 스카프, 허리벨트, 앞트임장식 등으로 전환되었고, 고정관념에서 벗어난 착장방식 그리고 비정형적인 형태변화를 통해 탈구성적인 연출을 시도하는 등 새롭고 감각적인 표현을 시도하였다.

이와 같이 넥타이가 갖는 상징적이고 개성적인 연출의 표현은 시대의 새로움에 대한 욕구의 표현이자 이상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논의를 통해 기타 장신구를 이용하여 디자인 발상과 전개에 활용하고 또 토탈 패션으로서 패션연출에 대한 인식이 제고되어 보다 새로운 패션의 이미지 창출이 전개될 수 있다고 사료된다.

■ 참고문헌

김경옥, 금기숙(1998). 현대패션에 나타난 앤드로지너스에 관한 연구. **복식**, 36, 239-262.

김민자(2004). **복식미학강의2**. 서울 : 교문사.

김은실, 배수정(2000). 장 폴 골티에의 작품에 나타난 해체주의 양식의 고찰. **가정과학연구**, 10, 60-71.

김주현, 권미정, 이순자(1999). 현대복식디자인에 나타난 해체주의적 표현과 그 수용에 관한 연구. **복식문화연구**, 7(4), 80-98.

박민여(1986). 남성넥타이 발전에 대한 역사적 고찰. **대한가정학회지**, 24(2),13-23.

신연수(1996). 넥타이디자인 표현 연구. 이화여자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현숙, 이정숙(2002). **패션과 액세서리**. 서울 : 신정.

정미진(2000). 넥타이문양에 나타난 살바도르달리의 표현기법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정용교(1991). 구성주의와 해체주의의 건축비교.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정은선(1994). 넥타이디자인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산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정홍숙, 정미진(2000). 넥타이 패턴에 나타난 호안 미로의 기호적 특성 연구. **생활과학논집, 13**, 185-192.

조말희(1996). 현대복식에 나타난 해체주의의 조형적 특성에 관한 연구, 성신여자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타이콘 패션연구소 (1997). **남자의 옷 이야기**. 서울 : 시공사.

패션큰사전편찬위원회(1999). **패션큰사전**. 서울 : 교문사.

함연자 (2003). 현대패션에 나타난 클래식 테일러드 수트의 미적 특성. **복식**, 53(6), 101-116.

Beate Schrrid, 황현숙 역 (2001). **패션의 클래식**. 서울 : 예경.

Francois Chaille, 황선희 역(1999). **넥타이**. 서울 : 창해.

Binder (1953). *Pearl Muffs and Morals*. London : George G. Harrays & col.

Doreen Yarwood(1992). *Fashion in the western world*. London: Baitsford.

(2006년 11월 13일 접수, 2007년 3월 27일 채택)